

# 평론가 김현의 삶과 문학유산

목포 출신... 16일 33주기 문학축전 학술심포지엄·시노래 콘서트 등 전국 문인들과 소통에 '초점' 목포 문인들 '시산문낭독회' 관심



김현 캐리커처(왼쪽)와 문학축전을 앞두고 열린 목포에서 진행된 김현전집 읽기 장면. <한국작가회의 목포지부 제공>



목포 출신 평론가 김현(1942~1990)은 독창적 비평으로 우리 문학의 비평을 업그레이드시킨 문인이다. 그의 문학적 자장은 오늘날까지 후배 문인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평론은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관념을 깨고 산문 형식의 글을 선보여, 비평의 읽는 맛을 선사했다.

김현은 서울대 재학시절 자유문학에 '나르시스의 시론'이 평론에 당선돼 문단에 나왔으며 김치수, 김병익, 김주연, 김승욱 등과 '산문시대' 등 동인활동을 펼쳤다. 평론을 작품에만 국한하지 않고 작가의 문학사적 위치와 연계해 풀어낸 점은 문학적 성과로 꼽힌다.

김현의 타계 33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평론 세계를 기리는 문학축전이 열린다.

(사)한국작가회의 목포지부(지부장 류경)는 오는 16일(오후 2시) 목포문학관에서 제17회 김현문학축전(문학축전추진위원장 우찬제 서강대 교수)을 진행한다. 김현문학축전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목포시와 문화과지성사가 후원한다.

시인인 김경에 목포지부 사무국장은 "이번 문학축전은 현대문학사에서 심원한 문학세계를 구축했던 김현의 문학적 자산을 수용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아울러 목포 지역문학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문학에 대한 향유를 확대하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김현으로부터 한걸음'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기념행사와 학술심포지엄, 시노래콘서트, 시산문낭독회, 김현문학카페 등 김현의 문학 유산을 매개로 전국 문인들이 소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경에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되는 기념식에서는 여는 공연이 예정돼 있다. 베이스 허주는, 테너 김경준으로 구성된 필그림의 공연에 이어 축사, 환영사, 문학축전 경과보고, 김현연보 낭독 등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학술심포지엄은 '김현으로부터 한걸음'을 주제로 총 2부에 걸쳐 진행된다.

1부에서는 박연희(연세대) 교수가 김현과 김지하의 문학적 관계성을 조망하고, 김영삼(전남대) 문학평론가의 토론을 통해 타자로서의 목포의 문학적 지향점을 타진한다. 2부에서는 한래희(송실대) 교수가 '김현의 후기 비평에 나타난 폭력론 연구'를 발표하고, 김형중(조선대) 문학평론가가 우리시대 비평 문학의 대안적 공간에 대해 토론을 한다.

시노래콘서트는 구름비나루, 오영목의 소소한 이야기로 진행된다. 시와 노래의 조화를 감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야기 중간중간 정양주 시인을 비롯해 장우원, 박연숙 등 전국 문인들이 시산문

낭독을 펼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프로그램은 '김현 문학카페'. 목포지역 문인들이 문학축전에 찾아온 전국 문인들을 위해 시산문낭독회를 진행한다. 전국 문인들과의 교류는 향후 목포 문학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4일부터 김현전집 읽기가 8주간 진행된 바 있다. 축전 본행사로의 관심을 환기하고 비평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현 연구자들과 지역 대표 문인들이 교차로 참여해 김현의 문학적 성취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오는 22일에는 조재룡 문학평론가의 여덟 번째 읽기를 마지막으로 올해 김현문학축전은 막을 내린다.

한편 우찬제 문학축전 추진위원장은 "올해는 선생님이 타계하신 지 3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선생님은 마치 종교를 대하듯 문학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문학사를 만드셨고 스스로 문학사가 되셨습니다"라며 "고향 목포에서 만든 김현문학축전에 오셔서 문학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지역영화 삭감 예산 원상 복구하라”

영화네트워크, 문체부 12억 전액 삭감 반발 공동성명

‘광주독립영화제’, (사)광주여성영화제,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광주독립영화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영화 네트워크(이하 영화네트워크)가 문체부의 지역영화 사업예산 전면 삭감 결정에 반발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영화네트워크는 12일 성명서에서 “두 사업 총계 12억 원 예산을 0원으로 전면 삭감한 것은 지역영화 생태계를 파괴하는 처사”라며 “지역영화에서 ‘영화’를 나누던 사람들의 소중한 시간을 멈추는 일을 중단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인 사업 폐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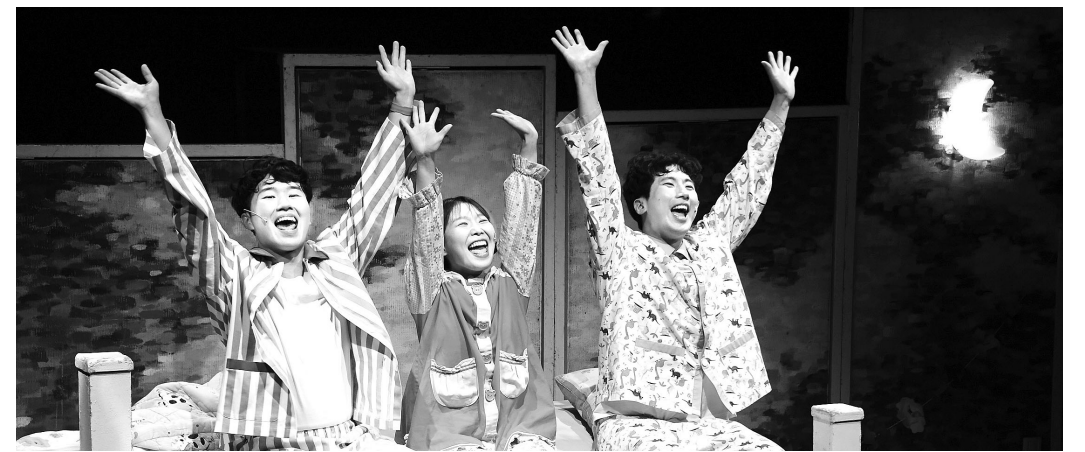
지역영화 관련 사업을 원상 복구하라”며 “지역영화문화 발전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지역영화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 영화인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에 비롯되어 왔다. 8억여 원 예산으로 가치봄(한글자막 해설 서비스), 지역영화 배급추진 사업 등 영화생태계 구축에 일조해 왔다.

한편 영화네트워크는 광주를 비롯해 전국 11개 지역(강원, 대구, 부산, 인천, 춘천 등) 99개 영화단체의 모임이다. /최류빈 기자 rubi@

## 세 아이들의 ‘찐 우정’ 이야기

극단 학전, 연극 ‘우리는 친구다’ 16일 남도소리올림터



올 여름 중로구 학전블루 소극장에서 진행했던 ‘우리는 친구다’ 공연 장면. <극단 학전 제공>

민호와 슬기 남매가 놀이터에서 만난 악동 ‘몽치’와 함께 오해와 난관을 헤쳐가는 가족극!

극단 학전은 연극 ‘우리는 친구다’를 오는 16일(오후 2시) 전남문화재단 남도소리올림터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독일 극연출가 폴커 루드비히 원작에 음악감독 비르거 하이만의 음악을 곁들인 작품을 편곡해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극은 서로 다른 세 아이가 진정한 친구가 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가르쳐준다.

민호·슬기 남매는 새로 이사 온 동네 놀이터에서

‘몽치’를 만나 서로 친구가 된다. 몽치의 장난감 총이 부러운 민호, 그런 민호의 자전기가 부러운 몽치는 서로 물물교환하지만 민호 엄마와 몽치 아빠의 오해를 산다. 여기에 몽치가 실수로 하수구 수로에 집 열쇠를 빼뜨리며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세 친구가 고난을 극복하고 ‘진짜 친구’가 되어 가는 이야기.

한편 이번 공연은 2023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일환으로 열린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전남문화재단이 주관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팬데믹과 ‘철학의 지평’ 변화

지역 문예지 ‘문학들’ 발간...가을 특집 ‘생명 정치담론’ 다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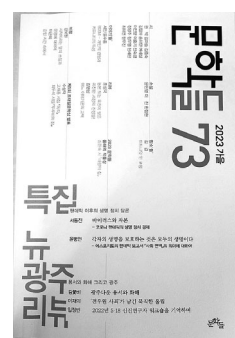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분야에서 변했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팬데믹은 이전과 다른 사유의 장소를 열어주었다 할 수 있다. 팬데믹이 철학의 지평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지역에서 발간하는 종합문예지 ‘문학들’(통권 73호)이 가을 특집으로 ‘팬데믹 이후의 생명 정치담론’을 다뤘다.

서동진 계원예술대 융합예술학과 교수는 ‘바이러스와 자본’이라는 주제의 글에서 팬데믹 이후 세계가 크게 달라진 것처럼 수다스럽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문한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을 유사(類

似) 존재론화하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시대 구분을 도입하고 자못 대단한 철학적 성찰이 필요한 것처럼 너스레를 떠는 것”을 경계 하라고 요청한다.

윤병언 번역가는 ‘각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모두의 생명이다’라는 주제의 글에서 “전염병 같은 자연의 재해생산기계가 작동되는 순간 대두될 문제점들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종류의 재해이든, 그것은 사회적 실체에 대한 이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



실”이라고 강조한다.

‘뉴광주리뷰: 용서와 화해 그리고 광주’에서는 전우원 씨의 방문을 생각해보는 글이 실렸다. 김꽃비의 ‘광주다운 용서와 화해’, 이재의의 ‘전우원 사죄’가 남긴 목직함 울림, 임정민의 ‘2022년 5·18 신진연구자 워크숍을 기억하며’는 새로운 속제와 다양한 생각거리를 준다.

조태일문학상과 문학작품상 소식도 실려 있다. 고재중 시인의 ‘독각’, 최두석 시인의 ‘두루미의 잠’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건너가는 법을 안내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동식물·자연과 ‘우리 가족 그린데이트’

미로센터, 오늘까지 문화예술교육사 역량 강화 교육 참가자 모집

동물, 식물, 자연을 소재로 가족과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데이트.

미로센터(센터장 한창운)는 오는 13일까지 문화예술교육사의 현장역량을 강화하는 ‘우리가족 GREEN 데이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미로센터에서 진행하며 가족당 2인 구성에 참여 가능하다.

17는 ‘남집사 명집사 모여라’ 라는 주제로 오는 16, 23일과 10월 7일 진행한다. 각각 커피피커 기로 반려동물 이름표 만들기, 폐점유 및 비닐로 반

려동물 장난감 제작, 반려동물과 추억을 기리는 액자 만들기 프로그램을 미로창작방에서 진행한다.

이어 27는 식물을 소재로 업사이클링하는 ‘식집사들 모여라’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다음 달 12, 19, 26일에 진행하며 각각 공병으로 풍경 만들기, 나만의 업사이클링 화병 제작, 업사이클링 화병에 꽃꽂이를 체험할 수 있다. 미로가든 진행.

3기는 ‘우리가족 모여라’라는 주제로 다음 달 21, 28일과 11월 4, 11일 계획돼 있다. 문의 062-608-2135.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직항로 개설 카페리어객선 6월 26일 취항

해남군 우수영 ↔ 신안군 장산 축강 30분대 신의 동리 50분대

사통팔달 해상교통의 관문 → 해남군 우수영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IC → 30분 소요



(유)신진해운 061)244-0522